

한기주 복귀시제

다시 돌아간다

3년 만에 마운드에 선 한기주는 “흠뻑을 맞았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기주가 17일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2군 연습경기에 출전, 1.1이닝 2피안타(1피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를 찍었다.

**KIA-SK 2군경기서 943일만의 등판
최고 142km 1.1이닝 1실점...“준비 잘할 것”**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다”는 자신의 평가처럼 기록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피칭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1일 한화와의 경기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한기주가 다시 마운드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 4차례의 수술과 함께 ‘10억팔’ 한기주는

KIA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팔꿈치 통증에 시달리던 한기주는 2009년이 끝난 후 처음 수술대에 올랐다. 2011년에는 손가락을 수술한 그는 복귀를 앞두고 통증이 계속 되면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어깨에 무리가 오면서 다시 또 기억할 수 없는 재활군 신세가 됐다.

조심스럽게 재활의 시간을 보낸 한기주는 지난 겨울 캠프 재활캠프에 참가하면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후 함평에서 몸을 만들어온 한기주는 이날 마침내 실전 피칭에 나섰다.

한기주는 첫 타자 조윤호에게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중전안타를 허용했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원아웃을 만들었다. 도루저지로 투 아웃, 세 번째 아웃카운트는 좌익수 플라이였다. 1회까지 기록한 투구수는 7개, 직구 스피드는 138km였다.

한기주는 1이닝만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투구수가 7개에 그치면서 2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박윤과의 승부에서 127km슬러

이더로 핫스윙을 유도한 한기주는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로 2B-2S를 만들며 변화구를 점검했다. 그리고 5구째 던진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솔로포가 됐다. 흠뻑은 허용했지만 142km가 스피드건에 찍혔다.

한기주는 이후 실재훈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던진 공은 총 15개, 직구는 8개를 던졌고 슬라이더(4개), 체인지업(2개), 싱커(1개) 등의 변화구를 구사했다.

한기주는 “2012년에 등판하고 나서 처음 던지는 거니까 벌써 3년 만이다. 볼펜피칭만 하다가 직접 마운드에 서니까 느낌이 새롭고 좋다. 1회 쉬고 나오니까 팔 스윙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어색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프지 않고 마운드에서 다시 공을 던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1군 마운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욕심내지 않고 준비 잘해서 돌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비의 늪...KIA 시범경기 4연패

타선 집중력 난조·실책연발...SK에 2-7

타선의 침묵 속에 ‘호랑이 군단’이 시범경기 4연패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2-7로 지면서 4연패를 기록했다. 선발로 등판한 임준혁은 야수진의 보이지 않은 실책 속에 5이닝 8피안타 2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공격적인 피칭으로 사사구 없이 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선발경쟁의 선두자리를 지켰다.

지난 주말 LG와의 경기에서부터 계속된 타선의 집중력 난조와 수비 실수가

눈에 띄었다. KIA는 1회 선두타자 김주찬이 볼넷으로 살아나간 뒤 2사에서 최희섭의 내야 안타와 이범호의 볼넷으로 만루를 채웠지만 후속타 불발로 점수를 뽑는데 실패했다.

보이지 않은 실책도 속출했다. 루키 황대인이 2루 자리에서 진땀을 흘렸다. 이날 2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황대인의 불안한 수비가 이어졌고, 6회 연속 실책으로 경기의 흐름이 기울었다. 임준혁에 이어 임준섭이 마운드를 물러받은 6회 2사 1-2루, 유격수 박기남의 송구 실책으로 KIA가 만루 위기에 몰렸다. 곧이어 황대인의 송구실책까지 나오면서 1-3이 됐다. 이후 불넷과 좌전안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1-6까지 벌어졌다.

결국 경기가 끝난 후 김기태 감독이 주전 타자들을 제외한 야수진을 소집

했다. KIA는 볼펜에서 몸을 풀었던 우완 한승혁과 좌완 김명찬을 마운드에 세워 라이브를 진행했다. 김 감독은 작전 상황시 타격 등에 설명을 하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야수진의 부진 속에 시범경기 4연패에 빠졌지만 함평에서 타선에 힘을 더할 바깥은 소식이 전해졌다.

스프링캠프 막바지 부상을 입으며 시범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외야수 나지완과 내야수 강한울이 이날 함평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다. 앞서 나지완은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 도중 입은 갈비뼈 부상으로, 강한울은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군에 머물러왔다. 두 선수는 각각 홈런포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복귀에 청신호를 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블론세이브·피홈런 3개 이하로”

오승환, 日 언론과 성적 ‘내기’

한신 타이거즈의 수호신 오승환(33)이 올 시즌 성적을 두고 일본 스포츠매체와 흥미로운 내기를 걸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17일 기획 연재물 ‘맹호의 약속’ 주인공으로 오승환을 초대했다.

‘맹호의 약속’은 산케이스포츠 오사카 본사가 1996년부터 한신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어 온 연재물이다.

특정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신문사와 선수가 일종의 내기를 하는 코너다.

일본 무대 2년차를 맞는 오승환은 올 시즌 블론 세이브(BS)와 피홈런을 각각 3개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승환은 일본 데뷔 첫해인 지난해에 39세이브로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올랐으나 블론 세이브를 6개나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피홈런은 5개를 맞았는데, 그중에는 끝내기 홈런도 포함돼 있었다. 비록 내기 수준이긴 하지만 오승환의 올 시즌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승환이 내기에서 성공하면 산케이스포츠는 지면을 털어 오승환과 관련된 기사를 실어야 한다.

반대로 실패하면 오승환은 독자들에게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케이스포츠는 요리를 좋아하는 독신남의 구비 요리법이 공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앞두고 1~5위 총출동

PGA 투어 아널드파머

시즌 첫 메이저골프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3주 앞두고 다시 한번 빅 매치가 성사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 앤 로지(파72, 7419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에서는 로리 매길로이<사진>를 비롯해 바바 왓슨(미국), 헨리크 스텐슨(스웨덴), 애덤 스콧(호주), 제이슨 데이(호주)까지 세계랭킹 1~5위의 선수들이 집결한다.

특히 매길로이는 아널드 파머 대회가 첫 출전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마스터스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

성하려는 매길로이가 이번 주 파머 대회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매길로이의 아성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랭킹 2위 왓슨은 올해 네차례 대회에 출전, 우승은 없었지만 모두 톱10에 드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다. 3위 스텐슨도 지난해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4위에 올라 우승 준비를 마쳤다.

롱퍼터는 포기한 4위 스콧은 일반 퍼터로도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스콧은 캐딜락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위를 차지했지만 발스파 챔피언십에서는 킷탈락했다. 5위 데이는 지난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우승으로 이미 샷 감각을 조율했다. /연합뉴스

